



신축 청사로 새로운 도약,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

## 전북 제1의 건진센터 도민 건강파수꾼으로 우뚝

전라북도도민의 건강지킴이로 제몫을 톡톡히 해온 전북지부가 청사 신축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. 지상 6층, 지하 1층의 4,414㎡ 규모로 전북 최대 건진기관으로 거듭난 전북지부. 이제 비상할 일만 남았다.

신청사에 체계적인 건진시스템 구축,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 도약  
 지난 6월, 준공식을 치르고 새롭게 문을 연 전북지부 건강검진센터는 우선  
 건진 공간이 이전보다 세 배 남짓 넓어져 고객들의 반가움이 크다. 1층으로  
 들어서면 넓고 산뜻한 고객대기실을 접할 수 있고, 2층 영상의학센터를 비  
 롯해 소화기내시경센터, 여성전문센터, 진단검사센터, VIP건진센터 등 각  
 층마다 깨끗하고 안락한 분위기로 바뀐 건진센터를 만날 수 있다.

특화된 공간을 새롭게 마련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. 우선, VIP건진센  
 터를 따로 뒀 종합건진 고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 
 다. 건진을 마친 고객들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카페처럼 꾸며놓은  
 드림정원도 이색적이다. 특히 지역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열린교육홀  
 은 전북지부만의 자랑거리다. 다양한 교육과 강좌를 마련해 지역민에게 건  
 강지식을 전달함은 물론, 지역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나간다는  
 계획이다.

전북지부는 청사 신축을 통한 이 같은 외적 기반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 
 의 질적 도약을 위한 내적 기반도 탄탄히 다졌다. MRI, CT, PACS, 풀HD  
 급 내시경, 칼라초음파기, 생화학자동분석기 등의 다양한 첨단장비를 새로  
 게 들여, 자체 검사와 판독으로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는 체계적인 건  
 진시스템을 구축했다. 특히 위·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 제거 및 조직검  
 사는 물론, 유방초음파, 갑상선초음파 검사에서 유소견자에 대한 미세침  
 (조직)검사까지 지부 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됐다.

#### 고객을 감동시키고 사회에 공헌하는 의료서비스

전북지부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. 매일 아침, 이른 시간에 전 직원이 내  
 원 고객맞이 방송멘트를 들으며 고객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자세를 가다듬  
 는 시간을 갖고 있다.

이밖에도 전북도민들이 올바른 건강지식을 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  
 체험터 및 캠페인 전개, 건강클리닉 등 다양한 홍보보건교육사업을 진행하  
 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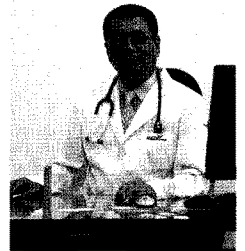
특히 전주MBC와 연계해 마련한 건강관리공개특강은 크게 인기를 끌었  
 다. 여성이민자 건진, 건협사랑봉사단의 자원봉사활동, 헌혈캠페인, 1사1촌  
 자매결연활동 등 의료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, 건강  
 교육, 자원봉사 등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다.

신청사 건립과 함께 전북 최대의 건진기관으로 거듭난 전북지부. 전북도  
 민들의 든든한 건강파수꾼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나갈 전북지부의 새로  
 운 행보를 기대해본다. **MEDYCHECK**

#### MINI INTERVIEW

### 전북지부건강증진의원 김명웅 원장 “도민 건강파수꾼이 되겠습니다”

“더 넓고 안락한 공간,  
 체계적인 건진시스템  
 을 갖추고 전북도민들  
 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 
 수 있게 됐다는 것이  
 무척 기쁩니다. 건진을  
 받는 모든 사람들이 만  
 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 
 최선을 다해야지요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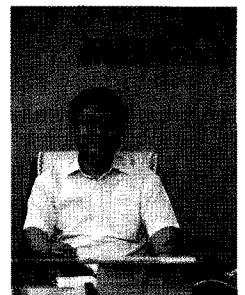


김명웅 원장은 신청사 건립 취지가 도민들의 건  
 강증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. 특히 전북도민들의  
 정기건강 및 국가 조기 암검진 등 예방 의료서비스  
 의 질적 도약이라는 바람을 충족시키는 데 크게 기  
 여할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.

“외적인 기반뿐만 아니라, 10명의 전문의를 비롯  
 한 110명의 직원들 모두 맞춤형건강증진서비스인 메  
 디체크를 통해 도민들의 활력 있는 건강을 지키는  
 건강파수꾼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.”

#### MINI INTERVIEW | 전북지부 강선규 본부장 “고객 만족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”

행정실을 고객만족센  
 터로, 본부장실을 고객  
 만족경영실로 바꾼 강  
 선규 본부장. 고객들이  
 진정으로 감동하는 의  
 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 
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  
 하고, 고객들이 보다 편  
 안하고 안락한 의료서  
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 바  
 로 그의 역할이다.



“저희에게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. 문제점을  
 개선하고 혁신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면서,  
 고객이 항상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할 뿐입니다.”

이를 위해 강 본부장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친  
 절이다. 서로 신뢰하는 직원들이 고객을 위해 최선  
 을 다할 때 고객들은 비로소 가슴으로 감동하게 된  
 다고 믿기 때문이다.

“저희는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도 최대의 공간  
 에서,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 제  
 1의 건진센터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.” 현실에  
 안주하지 않는 전북지부의 날갯짓에 더욱 기대를  
 갖게 되는 이유다.